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9. 7. 23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정수, 사무관 박균성, 주무관 김송이 • ☎ (044)201-3544, 3545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·믹서트럭·펌프 신규 등록 제한 특고종사자 보호·공급과잉 해소·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 목적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김현미)는 7.23일(화) ‘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*’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용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「2019~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(안)」을 심의·의결했다.

* (목적)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(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)
(구성) 국토부차관(위원장),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·이해단체 등 15인 이내

○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(2021년 7월 31일까지) 더 연장한다.

○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%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, 올해 8월 1일부터 향후 2년간(2021년 7월 31일까지)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,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*를 사전에 시행했다.

*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: (수행기관) 건설기계산업연구원, (기간) '19. 3. ~ 8.

○ 연구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업계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, 건설자재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.

○ 연구결과, 덤프트럭·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을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, '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.

-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 공급 상태이며, 등록대수 증가율*, 장비의 대형화 추세** 등 고려하여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* '09~'18년간 등록대수 증가율 : 콘크리트믹서트럭 16%, 콘크리트펌프 38%

** '15~'18년간 대형장비(130m³/h) 비중이 37.9%(837대) 증가하여 가동능력 증가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(대여사업자겸 조종사)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,

○ “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,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노후 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기폐차 지원 및 등록 말소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대차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* 노후화물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지원 중('19년 1,207억, 15만대/환경부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균성 사무관(☎ 044-201-35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